

Online Series

2023. 07. 29. | CO 23-18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홍 민(북한연구실장)

북한의 정전협정일¹⁾ 70주년 열병식은 등장 무기와 참가인원 규모 면에서, 역대급이었던 2022년 4·25 열병식에 비해 60~70% 수준이었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한 직접적인 대내외 메시지는 없었다. 그러나 ‘전략무인정찰기(〈셋별-4〉형)’, ‘다목적공격형무인기(〈셋별-9〉형)’ 등 위협적인 신형 무기 공개, 수중핵어뢰 <해일>, 극초음속미사일, ICBM <화성-17>형과 <화성-18>형, 전술핵무기(KN-23, KN-24, KN-25) 등 핵심적인 전략·전술 핵무기들을 등장시키며 향후 대미·대남 무력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공세성’은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1) 북·중·러의 연대와 외교·군사분야 협력 과시, (2) ‘무장장비전시회-2023’과 연계한 주요 전략·전술 무기 성과 과시, (3) 한미에 대한 공세적 무력행사 메시지 발신 등에 집중했다. 북·중·러 연대 과시라는 외교적 메시지와 실질적인 군사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으로 열병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문제적 장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축하사절단이 열병식에 참석, ICBM을 비롯한 북한의 핵탄두 탑재 전술·전략 미사일들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연출한 부분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보로 향후 외교적 파장은 물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ICBM, 군사정찰위성, SLBM 개발 등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적 지원이 더 이뤄질 지 여부이다. 이 경우 북한 핵·미사일의 실질적 위협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 북러 및 북·중·러의 직간접적인 형식의 연합훈련 및 무기운용 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열병식 이후 8~9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한 공세적인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1)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또는 ‘전승절’로 부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총 13회 열병식 동향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부터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방송했다. 2시간 15분 정도로 편집된 이 영상의 실제 행사는 전날인 27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해 2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여섯 번의 열병식 모두 야간에 진행해 사실상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총 13회의 열병식을 개최, 모두 김정은이 참석했다.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은 전체 13회 중 총 6회로 연설 비율은 46%였다. 이번에는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을 대신했는데, 지난 2013년 7월 정전협정일 60주년 열병식 때도 김정은 연설 없이 당시 군 총정치국장 이었던 최룡해가 축하 연설을 대신한 바 있어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

<표 1>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열병식 개최 동향

기념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김일성 생일 (4·15)	○ 100주년 (참/연)					○ 105주년 (참)							2
진군절 (2·8)							○ 70주년 (참/연)					○ 75주년 (참)	2
혁명군 (4·25)		예식									○ 90주년 (참/연)		1
정전일 (7·27)		○ 60주년 (참) 중국대표단										70주년 (참/연) 중국대표단 러시아대표단	2
정권 수립 (9·9)		○ 65주년 (참)					○ 70주년 (참) 중국대표단			○ 73주년 (참)			3
당창건 (10·10)				○ 70주년 (참/연) 중국대표단					○ 75주년 (참/연)				2
당대회										○ (1·14) (참)			1
합계	1	2	0	1	0	1	2	0	1	2	1	2	13

주: 1) 주간 / 야간

2) ‘참’: 김정은 참석

3) ‘연’: 김정은 연설

4) ‘중국대표단’: 중국축하대표단 주석단 참석

김정은 집권 이후 열병식 중 외국 사절단이 주석단에 함께 선 경우는 세 차례였고 모두 중국 고위급 축하사절단이 참석했다. 러시아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번처럼 러시아와 중국 고위급 축하사절단이 모두 참석한 경우는 처음이다. 앞선 세 차례 외국 사절단 참석 사례 중 김정은이 연설한 경우는 2015년 당창건 70주년 열병식 한 차례였다. 이번 김정은 연설 생략은 중러 고위급 축하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대미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에 대한 양 국가의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열병식은 통상 연 2회 이상 개최하지 않고 있다. 2개 이상의 기념일 정주년이 겹쳤던 2018년에도 2회만 개최했다. 열병식 준비에 투입되는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에는 ‘조선인민군 창건일(75주년)’ 열병식과 ‘정전협정일(70주년)’ 열병식 이외에 하반기 ‘정권창건일(75주년)’이 있어 통상 정권창건일에 열병식을 개최했던 전례에 비춰 연 3회 개최 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연대 과시와 무기 세일즈 차원의 열병식 외교에 초점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북·중·러 연대 과시라는 외교적 메시지와 실질적인 군사협력이라는 실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열병식은 주로 내부 결속과 무기 과시, 리설주나 김주애가 참석하는 국내 축제용 형식을 취했다. 이번 열병식은 이들에 걸쳐 축하사절단의 김정은 접견,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 전달, 무장장비전시회 관람, 축하공연 관람, 국방장관회담, 연회, 열병식 등을 하나의 세트로 기획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대와 무기 개발 성과, 대미 경고 등 외교·군사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대미 항전이라는 ‘전승절’의 상징적 코드와 중·러 축하사절단을 활용하여, 김정은이 강조해 온 ‘신냉전’ 구도,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진영화를 열병식을 통해 시각화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27~28일 보도 사진에서도 나타나는데, 양일에 걸친 관련 사진 보도 전체 202장 중에서 러시아 및 중국 축하사절단 관련 사진만 총 129장이 게재됐다. 전체 사진 중 64%에 해당한다.

한편 신형무기들의 쇼케이스, 세일즈 장으로 열병식을 활용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김정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신형 무장장비들”이 전시된 전시회를 참관하는 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부분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추세와 발전전략”과 “호상(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무기와 보급 부족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의 무기 판매를 비롯하여 향후 무기 및 기술의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러의 초밀착 과시와 신중한 거리 두기를 한 중국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1) 러시아 및 중국 축하사절단의 열병식 참석을 통한 ICBM을 비롯한 전술·전략 미사일 행렬 참관, (2) 북러의 ‘공동전선’,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과시한 부분이다. 외형적으로는 북·중·러의 연대로 비춰질 수 있으나, 북러 및 북중의 밀착에서는 다른 결이 느껴진다. 러시아 축하사절단 관련 보도에서는 “견해일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공동전선”, “전략적 단결”, “전략적 우의”, “한전호” 등의 표현을 썼지만, 중국 축하사절단 보도에서는 전통적 우의에 대한 상투적 표현 이외에 이렇다 할 밀착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27~28일 자 노동신문에서 중국대표단 동정 사진은 30장인 반면, 러시아 축하사절단 동정 사진은 무려 84장으로 3배가량 많았다. 이런 보도의 차이는 북한의 일방적 설정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적극성에 비해 중국이 상당 부분 신중한 거리 두기를 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중국의 신중함은 축하사절단 ‘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70주년 정주년 행사이고 중국이 참전한 전쟁 관련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장 ‘급’이 과거보다 한참 낮다는 점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앞선 세 차례 파견 때는 리위안차오(2013.7.27.), 유원산(2015.10.10.), 리잔수(2018.9.9.) 등과 같이 국가 부주석,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내 권력 서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급의 최고지도부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리홍중은 25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으로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위상의 인물이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물 수위를 조절, 북중 긴밀한 협력을 연출하기보다는 상징적 참석에 무게를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급이 낮다 보니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공식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최근 미중 간 과열된 경쟁구도를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단 미국 장관급 고위직들의 방중,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주문하는 미국의 메시지 등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고위층을 파견하여 북중 밀착을 자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한 홀대를 피하는 상징적 참석 수준으로 인물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의 제한적 군사협력, 향후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우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적 지지 입장, 군사협력, 대미 공동전선 형성 차원에서 북한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의주시가 필요한 부분은 북러 사이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가능성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기술 지원의 여부다.

북한이 ICBM, 군사정찰위성, SLBM, 핵잠수함 등과 관련 봉착해 있는 기술적 난관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여부에 따라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수준은 한층 높아지는 것 이상의 위협에 있어 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은 그에 상응할 만한 북러 간의 거래 등식이 어느 정도 성립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며 기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핵기술 이전에 상응하는 북한의 전략적 등가물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지, 전시 물자나 보급품의 공급, 전후 복구 참여 이상으로 북한의 필요성이 전략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선 고도의 핵기술 이전보다는 외교적 공동전선 과시와 제한적 군사협력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 사진 절반 감소, 선택과 집중 통해 신형 및 전술·전략 핵무기에 초점

이번 열병식을 다룬 7월 28일 자 『노동신문』에는 행사 사진이 총 150장 게재됐다. 이 중 무기를 조명한 사진은 총 20장이다. 202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 보도사진이 총 152장, 무기를 찍은 사진이 60장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020년 이후 열병식 사진이 대체로 100여 장, 무기 사진이 40~60여 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열병식 보도는 전체적으로 절반가량 사진 수가 줄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두드러진다. 기존에 등장했던 재래식 포병 무기를 빼고 초대형방사포(KN-25), 신형전술유도무기(KN-23 개량형, KN-24), 전략순항미사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8>형, <화성-17>형 등 핵탄두 탑재 전술·전략 무기에 집중했다. 여기에 전략무인정찰기(북한판 글로벌호크), 다목적공격형무인기(북한판 리퍼) 등 신형무기를 추가했다.

<표 2> 김정은 시대 열병식 행사 노동신문 게재 사진 수

기념일	2023 7.27	2023 2.8	2022 4.25	2021 9.9	2021 1.14	2020 10.10	2018 9.9	2018 2.8	2017 4.15	2015 10.10	2013 9.9	2013 7.27	2012 4.15
전체 사진 수	82	150	152	73	100	127	94	100	78	38	12	18	42
무기 사진 수	20	37	60	0	42	62	14	41	25	8	2	4	11

따라서 이번 열병식은 기존 보유한 다종의 무기를 최대치로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전술·전략 핵무기,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화성-17>형과 신형 고체형 ICBM <화성-18>형에 집중하도록 무기 동원을 효율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열병식 규모는 약 16종 112대 무기, 66개 종대, 참가규모 13,000여 명

이번 열병식에 56개 보병 및 기계화 종대, 10개 미사일 관련 종대 규모로 총 66개 종대가 참가했다. 보통 한 개 보병 종대가 300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략 전체 참가인원 규모는 약 13,000~1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25 열병식이 50개 보병 종대, 22개 기계화 종대로 합쳐서 총 72개 종대가 참가, 인원 규모를 약 20,000여 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대체로 지난해 역대급을 기록한 4·25에 비해 규모는 60~70%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김정은 시대 열병식 식별 무기와 규모

일 자	2023 7.27	2023 2.8	2022 4.25	2021 9.9	2021 1.14	2020 10.10	2018 9.9	2018 2.8	2017 4.15	2015 10.10	2013 9.9	2013 7.27	2012 4.15
식별 무기	16종 112대	13종 100여 대	26종 170대	0	20종 172대	23종 225대	12종 125대	17종 136대	22종 169대	31종 291대	2종 20대	38종 285대	37종 560대
전체 종대	66	60	72	노농 적위대	50	61	54	36	85				
참가 인원	13,000	15,000	20,000		15,000								

전략·전술 미사일 이외 공격형 신형급 무기 및 부대 등장

올해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때 고체연료형 ICBM <화성-18>형을 처음 공개했던 것처럼 새로운 핵무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열병식에선 2023년 상반기 실험과 훈련을 통해 공개했던 무기들을 열병식을 통해 재차 실물로 공개했다.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신형무기로는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 다목적공격형무인기 <샛별-9>형이 가장 주목을 끈다. 북한이 명명한 ‘전략무인정찰기’는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모양의 무기이다. ‘다목적공격형무인기’로 명명한 무기 역시 미군이 보유한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유사한 모양의 무기다. 북한은 7월 26일 ‘무장장비전시회-2023’ 보도사진 20장 중 이 두 무인기 노출 사진을 5장 게재했고 27일 열병식에선 열병광장 상공을 순회 시위 비행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27일 저녁 조선중앙TV에선 ‘무장장비전시회-2023’ 오프닝 영상으로 무인공격기 <샛별-9>형의 비행 모습과 미사일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열병식에선 ‘다목적무인기종대’로 소개, 전담 부대가 편성됐음을 과시했다. 실제 비행 장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성능 개량 과정을 거쳐 무기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멀리 않아 실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인정찰기나 무인공격기는 한미 정찰자산의 압도적 우위, 무인공격기 개발 및 드론부대 운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개발로 의도적 공개로 보여진다. 향후 안정성이 확보되면 대남 침투 정찰활동 및 시위성 비행 도발이 예상된다.

<표 4> 최근 열병식 등장 무기 순서

2023.7.27.	2023.2.8.	2022.4.25.	2021.1.15.	2020.10.10.
총 16종 112대 핵무기: 8종	총 13종 100여대 핵무기: 5종	총 26종 170여대 핵무기: 12종	총 20종 172대 핵무기: 6종	총 23종 225대 핵무기: 10종
[과거 재현무기] 1. T-34 전차부대 6대 [기계화중대] 2. 수륙탱크중대 6대 [미사일중대] 3. 초대형방사포 8대 4. 전략순항미사일 6대 5. KN-23 중대 6대 6. KN-24 중대 6대 [수중무기] 7. 해일 수중전략전중대 4대 [반항공로켓트무력] 8. 번개-7호 반항공미사일 4대 [무인기] 9. 무인기중대 4대 [전략군기계화] 9. 극초음속미사일중대 4대 10. 화성-18형 4기 11. 화성-17형 5기	[과거 재현무기 중대] 1. 보병 제1연대 6대 2. 제603 모토사이클연대 18대 3. 견인포병부대 6대 4. T-34 전차부대 6대 [주력탱크 중대] 5. M2020 전차 6대 [최신형자행포부대] 6. 155mm 자행곡사포 6대 7. 300mm 12연장 방사포 6대 [초대형방사포] 8. KN-25 초대형방사포(4연장) 6대 [반항공로켓트무력] 9. 번개-7호 6대(추정) 10. KN-24 6대 11. KN-23 차륜형 6대 12. 화성-17형 7대 13. 고체형 ICBM 4대	[기계화중대] 1. 8연장 대전차 미사일 장갑차 9대 2. M2010 APC 장륜장갑차 9대 [전술유도무기중대] 3. ATGM 탑재 트럭 9대 (북한판 스파이크 탑재) [주력탱크 중대] 4. M2020 전차 북한판 에이브람스 8대 [최신형자행포중대] 5. 155mm 자행형곡사포 8대 6. 240mm 22연장 방사포 9대 7. 300mm 12연장 방사포 9대 [초대형방사포] 8. KN-25 4연장 (초대형방사포) 9대 [미사일중대] 9. 전략순항미사일 5연장 9대 10. KN-23 개량형 SLBM 4대 [수중전략탄도탄중대] 11. SLBM(북극성-5보다 큰 형태) 4대 [반항공로켓트무력] 12.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레이더 6대	[기계화중대] 1. 8연장 대전차 미사일 장갑차 9대 2. M2010 APC 장륜장갑차 9대 [기동포병] 3. M2020 차륜형 장갑차 9대 [주력탱크] 4. M2020 전차 북한판 에이브람스 9대 [최신형자행포] 5. 155mm 자행곡사포 9대 6. 200mm 12연장 방사포 9대 [다연발공격무기-초대형방사포] 8. KN-25 초대형방사포 (4연장) 9대 9. KN-25 초대형방사포 (6연장) 9대 [수중전략탄도탄] 10. 북극성-5사 4대 [반항공로켓트무력] 11.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레이더 12. 번개-6호 4대 13. 번개-7호 6대	[전술로켓중대] 1. 8연장 대전차 미사일 장갑차 9대 2. M2010 APC 장륜장갑차 9대 [기계화포병부대] 3. M2020 차륜형 장갑차 9대 [전차부대] 4. M2020 전차 북한판 에이브람스 9대 [최신형자행포부대] 5. 155mm 자행곡사포 9대 6. 240mm 22연장 방사포 9대 7. 300mm 12연장 방사포 9대 [초대형방사포부대] 8. KN-25 초대형방사포 (4연장) 9대 9. KN-25 초대형방사포 (6연장) 9대 [로켓트중대] 10. 전략순항미사일(5연장) 9대 11. 금성-3호 지대함 미사일(KN-19) 9대 [수중전략탄도탄]

		13. 금성-3호 지대함(KN-19) 장갑화 개량형 무기 4대 14. 번개-7 4대 [전략군기계화중대] 15. 북한판 KTSSM 6대 16.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8대 17. KN-24(북한판 에이태키프스) 6대 18. KN-23 대형화(고중량탄두형) 개량형 6대 19. 극초음속 미사일 2형 6대 20. 화성-8(글라이더 활공체 극초음속미사일) 6대 [장창하 붉은기중대] 21. 화성-15형 4대 [김정식] 22. 화성-1형 7 4대	[최신형 주력장비] 14. KN-23 차륜형 6대 15. KN-24 9대 16. KN-23 개량형 SLBM	12. 북극성-4사 4대 [반항공로켓무력] 13. 신형 저고도 대공체계 레이더 14. 번개-6호 4대 15. 지상발사용 북극성-2형 6대 16. 번개-7호 6대 17. KN-23 차륜형 6대 18. KN-23 레드형 6대 19. KN-24 9대 [화성포병] 20. 화성-12형 6대 [대륙간탄도로켓 중대] 21. 화성-15형 4대 22. 화성-17형 4대
--	--	---	---	--

한편 ‘핵무인수중공격정중대’를 역시 처음 언급하며 이를 운용하는 부대 편성 역시 과시했다. 올해 3월 21일, 3월 24일, 4월 8일 <해일-1>형, <해일-2>형의 실험을 보도한 바 있는데, 실물 형태로 열병식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상륙돌격대대’ 존재 역시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41상륙돌격대대중대’로 소개된 이 부대는 부대 깃발에 2017년 5월 7일을 창설 일자로 표기하고 있고 유사시 한국의 서해안 방어선을 뚫고 상륙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병대의 상륙 훈련에 대응한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무인기를 비롯하여 이들 무기나 부대 모두 기존 미사일 중심의 ‘억제’, ‘보복’ 능력에 집중하던 것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미사일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해안 및 항구 등 주요 전략 요충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무인기나 수중전술·전략무기 개발은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개발을 예고한 무기로 2021년 이후 빠르게 개발·전력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방향 및 핵심과제

■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무기 개발방향

- ①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
-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 ③ 1만 5천 km 사정거리 내 다양한 전략적 대상에 대한 타격 능력 확보
→ 미국 본토, 미 태평양 함대, 미 제7함대, 주한미군 등에 대한 ‘핵 선제 및 보복 능력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

■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전략무기 개발 5대 핵심과제 추정

- ①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미사일
- ② 수중 및 지상에서 발사되는 고체형 ICBM
- ③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
- ④ 무인정찰기 등을 제시

공세적인 무력 대응 방침 확인, 북·중·러 연대 미지수

이번 열병식은 최근 강화된 한미동맹 및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 전선을 연출하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여러 담화와 무기 발사를 통해 보인 반응은 전체적으로 강화된 한미 및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열병식에서 강순남 국방상 연설로 대신했지만,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세적 무력 대응을 예고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러시아와 중국 축하사절단 앞에서 밝힌 부분은 이런 압박에 대응해 중러와 대미 공동전선을 펼치고자 하는 강한 기대를 투영한 대목이다.

이번 연설에서 강조한 (1)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나토와 협력 강화, (2) 한미의 ‘핵협의그룹’ 가동, (3) 미국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4) 한미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 등은 중국 및 러시아가 느끼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자극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행보가 온전히 북한 기대에 부응할지는 의문이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